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7호 【루계 제25636호】 주체106(2017)년 5월 7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려명거리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사회주의문명이 용솟음친 현대적인 거리를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건설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정헌철, 철도성청년돌격대 부대대장 송철주, 평양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리광일, 속도전청년돌격대 대원 김혁은 착공의 첫날부터 대건설전투에 참가하여 갖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기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기공구,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지원하여 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함경남도설비물자감독국 부국장 안기호, 외교단사업총국 산하단위 로동자 함향이,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소 품질감독원 김향미도 돌격대에 탄원하여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건설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하였다.

지난 기간 온 가족과 함께 중요대상건설지원사업을 잘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어려차례 받아안은 인민봉사총국 부원 윤원은 려명거리건설장에도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과 물심량면의 지원으로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였다.

보통강수산물상점 부원 리은별,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인민보안원 리혁철, 대성지도국 부원 차충일, 조선국제체육려행사 안내통역원 김혜영은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는 뜻깊은 곳에 보람찬 삶의 자욱을 새겨갈 열의밑에 공사초기부터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대성구역 룡흥3동 49인민반 백명화는 남편과 딸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준 어머니당의 대해같은 은덕에 보답할 마음으로 려명거리건설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을 성의껏 원호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날로 더해만 가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가슴뜨거운 현실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인민보안성 산하단위 로동자 전해옥, 무역은행 장수련은 려명거리건설 야간지원돌격대활동에 적극 참가하면서 전투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혈육의 정을 기울이였다.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소장 한영식은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불철주야의 총결사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가정에서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지원하였다.

태양의 성지지구를 인민의 제일락원으로 천지개벽시키는 숭고한 사업에 기여할 열의밑에 선교구역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김함, 영광무역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영심, 평양외국어대학 로동자 리상원,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산하단위 교원 정선향, 남포시검찰소 로동자 김춘희도 많은 건설자재들과 물자들을 돌격대들에 보내주었다.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안고 평안북도보험국 운산군보험지사 부원 임봉순, 운하대성식료공장 신혜정, 중앙은행 평안남도 희창지점 석황저금소 소장 최정옥, 강원도금강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한철학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려명거리건설지원사업에 재끗한 공민적량심을 바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집력의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에 적극 헌신해갈 애국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내가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비서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이 아랍사회부흥당을 지지해주고 특히 당신께서와 친선적인 귀국지도부에서 우리 나라가 현재 직면한 난관을 극복해나가도록 관심을 돌려주시고 수리아의 령토완정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며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회복하는 등 현 위기를 민족대화에 기초하여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을 성원해주시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7년 5월 4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수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수리아 글로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11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수리아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온갖 위협과 도전에 맞서 승리를 떨쳐가시는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각하를 충심으로 존경하고있다.

위인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보다 큰 진보와 번영,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본사기자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는 극악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의 분노의 목소리

악의 소굴들을 재가루로 만들겠다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살인악마들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할 치떨리는 흉계를 꾸민 사실에 접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분노와 복수심은 하늘에 닿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국제테로왕초인 미국과 그 손발노릇이나 하는 사람값에도 못 드는 남조선괴뢰들이 비렬하고 유치한 테로에 환장이 되여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릴 작당질을 했다니 이가 갈린다.

아무리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여도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고 덤벼야 했다. 우리의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이 무엇을 위해 필요하며 그의 첫째가는 타격목표가 무엇인가를 새겨보았다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를 제일사명으로 하는 우리 인민군대가 저들의 정수리에 들씌울 멸적의 불소나기세례를 상상해보았다면 쇳을 지고 불속으로 뛰여드는 그따위 무모한 망동을 부릴수 있었겠는가.

날을 따라 강화되는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앞에 덴겁하여 큰칼을 피해 골목칼에서 쏠라닥거리며 어리석은 개꿈을 꾸는 잔악한 쥐새끼무리들에게 용서나 자비란 있을수 없다. 오직 무자비한 복수의 불마당질로,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자기의 대역죄의 후과를 몸서리치게 느끼게 할것이다.

놈들이 죄를 뉘우친다고 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 일당백용사들의 심장은 벌써 보복의 로분을 열었다.

그 타격목표는 미중앙정보국과 남조선의 《국정원》나부랭이들만이 아니다.

악의 근원, 테로의 총본산인 미국과 상전의 발바닥을 핥으며 하늘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미친개처럼 날뛰는 더럽고 유치한 남조선괴뢰패당이 모두 우리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은명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만장약된 백두산총대로 천하무도한 악당들의 명줄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릴것이다.

하늘과 땅, 바다를 지켜선 우리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들과 개무리들을 단숨에 죽탕쳐버릴 멸적의 시각을 분분초초로 기다리고있다.

이제 놈들은 다발적으로 강도높이 개시되는 우리 식의 반테로타격전, 백두산혁명강군의 정의의 소탕전의 진맛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 장령
리 덕 송

마지막 한놈도, 그 씨종자도 없게

치솟는 분노와 천백배의 징벌의지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하려고 미쳐날뛴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의 살인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칼탕쳐버릴 격노의 함성이 지금 이 땅의 그 어느곳에서나, 그 누구의 가슴에서나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맞설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는 망동인가. 만고에 있어본적이 없는 천하제일 악한것이 테로의 총본산인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살인악마들에 의하여 암암리에 고안되고 추진되고 있다.

《참수작전》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면서 우리의 문전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미친 지랄은 결국 드러난 최후발악이다. 그런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살인악당들의 국가테로행위가 비밀리에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 극히 엄중한 단계에서 벌어지고있으니 천만군민의 가슴이 어찌 격노로 끓지 않을수 있겠는가.

천년만년이 흘러도 실현할수 없는 개꿈을 꾸면서 분별없이 날뛰는 특대형테로범죄자들은 우리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며 씨를 말려 죽탕쳐버려야 할 살인귀무리이다.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도 지적되여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특대형범죄는 우리 인민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을 허물고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이다.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는 국가보위성의 제일생명이다.

지구를 통째로 발가내서라도 이번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잡아내여 그 씨종자까지 칼탕쳐죽이고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으로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을 비롯한 악의 소굴들을 불바다로 만들려는 우리의 결심은 최종적이다.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천만군민의 보복성전앞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려고 발악하는자들이 살아숨쉴 곳은 이 행성 그 어디에도 없다.

국가보위성 군관
리 정 록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이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치를 떨고있다.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를 감행하려는 이 천인공노할 음모를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이 미친개무리들을 어떻게 징벌해야 속시원하겠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번 특대형범죄를 단순히 국가주권의 대내적안전에 대한 불순적대세력들의 있을수 있는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이며 이러한 범죄는 꿈꾸는것마저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지구를 통째로 발가내서라도 이번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행성의 어느 구석, 어느 그늘밑에서 서식하든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놈까지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겠다는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의 구절은 그대로 우리 평양시민들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하도록 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겠다.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고 수령결사옹위정신만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드세차게 벌려나가도록 하겠다.

하여 시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는 주체조선의 심장인 평양을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억척같이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한몸 바쳐 결사수호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평양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김 봉 석

태평양밑으로 굴을 뚫어서라도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 견딜수가 없다. 악의 본거지, 모략의 소굴에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테로모략이 꾸며지고있었다니 미제와 그 떨거지 괴뢰들은 리성을 잃은 미친병자가 분명하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만리마속도로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횡포무도한 초강경위협과 극악한 제재책동에 매여달리다 못해 이제는 생화학물질까지 동원하며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망동은 우리 금골광부들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적개심과 복수심만을 만장약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이 땅은 결코 발칸반도가 아니며 이라크나 리비아는 더욱 아니다.

벌써 1950년대에 《유일초대국》이라고 부르짖던 미제를 굴복시킨 전승의 나라이며 오늘은 그 이름도 존엄높은 핵보유국,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이다.

지금 이 시각도 숲을 이룬 멸적의 포신들이 악의 제국, 모략의 본거지들을 겨누고있고 그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기 힘만을 굳게 믿는 자강력의 강자들로 준비된 조선로동계급이 무쇠마치를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만 기다리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의 테로광신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이 시각부터 이 세상 가장 비렬하고 잔악한 특대형테로집단인 미제와 괴뢰도당의 정보모략기구들을 소탕하기 위한 우리 식의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이 개시될것이라고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은 우리 금골광부들의 심장마다에 멸적의 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우리 인민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원쑤들의 악랄한 모략책동에 나는 김덕광부들의 이름으로 단호히 선언한다.

태평양밑으로 착암기로 굴을 뚫어서라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아예 통째로 발파해버리고말겠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온갖 비렬하고 횡포무도한 모략책동을 증산의 발파소리로,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만리마시대 선구자작업반의 힘찬 발구름으로 죽탕쳐버리겠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소대장 고 경 찬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는 테로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는 청년대학생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위대한 전통을 꿋꿋이 계승해나가는 혁명은 백전백승한다

지난 3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판으로 훌륭히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진로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계승의 정치임을 세계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시기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 가장 절박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혁명전통교양을 놓치면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다그쳐지고 제기되는 혁명과업이 방대할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수령만이 창시할수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의 전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에서 1960년대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옹호계승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위대한 전환의 년대이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정세가 말그대로 일촉즉발이던 때의 일이다. 한쪽에서는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우리를 《보복》하겠다고 날뛰였고 한쪽에서는 미제의 전쟁공갈책동에 겁을 먹은 수정주의자들이 비겁하게도 우리에게 미제와 타협할것을 설교하던 때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도를 보시며 량강도인의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거목한 자욱을 찍으시면서 그 어떤 사나운 격랑과 폭풍이 휘몰아쳐와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우리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가 내린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에서 풍찬로숙하시며 강도 일제와 싸우신 위대한 수령님 생각으로 승엄한 격정에 휩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면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백두의 혁명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혁명의 명맥이며 우리의 오늘과 래일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이라고 뜨겁게 강조하시였다.

력사의 그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전통입니다. 우리 나라 혁명운동력사에서 간고한 시련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한 혁명투쟁은 수령님께서 조직진행하신 항일혁명투쟁밖에 없습니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혁명전통의 폭을 상하좌우로 넓혀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모독하고 흐리게 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한 사실을 념두에 두고 하시는 준절한 교시였다.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영화촬영소에서 인민군구분대들에 내보낼 목적으로 만든 기록영화를 보시였다. 그 영화는 인민군대안의 어느 한 중대의 《경험》을 소개하는 영화였는데 놀랍게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심히 어긋나게 창작된것이였다.

인민군대안의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어떤 《간부》라는자가 어느 한 중대에 내려가 항일유격대내 중대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어긋나게 제멋대로 《창조》한 그 무슨 《경험》이 마치 모든 중대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처럼 선전된 영화였다. 그 영화촬영소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였다. 몇해전에도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사실을 취급한 어느 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아니라 군대안의 어떤 개별적《간부》의 《혁명경력》과 《공로》가 요란스레 찬미된 영화였다.

영화가 노리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의 보금땅들에 내보내지 말데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런데 우리 당의 혁명전통과 어긋나는 영화를 또다시 만든것은 그저 창작상오유로만 설명할수 없는 문제였다. 혁명전통에 대한 배신행위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에는 서리발같은 분노가 번뜩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자들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군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일대 선풍을 일으키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에게 놈들을 미연에 폭로분쇄한것은 우리 당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큰 공로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력사에는 남다른 풍격과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탁월한 사상, 절출한 풍격과 자질을 겸비한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혁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력사의 초행길을 개척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천만년세월 계승하고 빛내여야 할 대없이 귀중한 만년재보를 위대한 혁명유산으로 남기신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전부인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성스럽게 계승하여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신념이였다.

그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하나도 덜지도 말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선언하시여 세계정치계를 진감시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한때 불순분자들이 농촌의 혁심진지를 허물려고 악랄하게 책동할 때에도, 지어는 봉건지주들을 찬미하는 《향토사》라는것까지 만들게 하려고 획책할 때에도, 《일편단심》과 같은 연극을 통하여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려고 책동할 때에도, 제놈들의 《고향》을 사적지로 꾸리는 놀음을 벌릴 때에도 단호히 적발분쇄하시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철옹성같이 옹호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

왕재산대기념비, 삼지연혁명전적지, 청봉숙영지…

어버이수령님의 20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사가 아로새겨져있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뜻이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깃들어있는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꾸리는 사업을 자신께서 직접 맡아보려고 한다고 선포하시고 온 나라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학교로 훌륭히 꾸리는 력사적인 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

매일같이 선군장정의 길에 계신 시련의 나날에도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과 함께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으시는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위대한 사상과 령도, 덕망이 집약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는 력사의 증언물들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들속에서》를 비롯한 도서들을 더 많이 출판하여 자라나는 후대들의 가슴에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새겨주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 이 책들을 한장두장 번지며 우리 천만군민은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우리 수령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시련에 찬 길을 인민과 함께 어떻게 눈물겹게 헤치시고 그 길에서 얼마나 위대한 공적의 탑을 높이높이 쌓으시였는가를 절감하며 그 위대한 력사를 후손만대 잊지 말고 길이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새 천년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단행하신 사실을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수령님의 영원한 혁명동지, 전사로서 수령님께 충정다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수령님의 뜻대로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성스러운 사명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나의 영원한 인생좌표이다.

이런 숭고한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가 새 천년기를 맞이하여 세기규정이요, 그 무슨 기념탑건설이요 하면서 벅적 끓을 때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기풍을 세우기 위하여 백두산으로 력사의 행로를 정하시였다.

강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는 길이 얼마나 준엄한 시련의 길이였는가를 증언하는 항일전구며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가 마련된 력사의 고장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새로 느끼는것도 많고 감흥을 받은것도 많다고, 그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풍찬로숙하시면서 적들과의 치렬한 싸움을 벌리시고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시며 간고한 행군길을 이어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를 절감하게 되며 그 과정에 이룩하신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전사회적으로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우며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는데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고,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국제적견지에서 보아도 중요하다고,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줴버리다보니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흘려 이룩해놓은 고귀한 전취물을 다 말아먹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제도까지 무너지게 하였다고,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 혁명의 붉은기를 변함없이 확고히 틀고나간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과 혁명선렬들에 의하여 창조된 혁명전통을 혁명의 다음세대들이 어떤 신념과 의지로 계승해나가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과시한 력사적인 사변이며 우리의 후손만대가 뼈에 새기고 받들어야 할 간곡한 유훈이다.

혁명전통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중요한 징표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력과 령도의 헌명성은 혁명전통계승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서 과시되게 된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더 장엄히 흐르고 위대한 수령님들에 의하여 마련된 혁명의 만년재보가 최후승리를 위한 만년재보로 빛나고있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긍지로운 현실이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년륜마다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떠나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발광하고있는 오늘의 정세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놓치면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 의지를 지니시고 지금으로부터 4년전 칼바람 몰아치는 날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을 더욱 굳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3년전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로 된다고,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줄기차게 벌려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만난시련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고,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혁명전적지들은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고 만들수도 없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중요한 교양거점이라고 강조하시면서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조선혁명을 완수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전군에 백두의 칼바람, 혁명전통교양의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할 숭고한 의지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시고 몸소 현지에 나가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신분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이태전 4월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할 때였다.

선군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동무들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모든 국사를 뒤로 미루고 수천리를 달려온것은 사랑하는 전투비행사들과 맺은 정때문만이 아니라 동무들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이라고,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떠나 조선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

그 다음날 새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전투비행사들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서 맞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칼바람속에서 쟁쟁 메아리쳤다.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맞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다.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열풍을 세차게 일구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 혁명업적, 령도풍모를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그것이 훌륭한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빛내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며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신이 넘쳐있다.

지금 우리 당은 전체 군대와 인민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데서 최우선중대사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초미의 과제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 혁명업적, 령도풍모를 통한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혁명전통이 저절로 옹호고수된다는 절대적담보란 없다. 우리는 온갖 기회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혁명을 말아먹기 위하여 당의 혁명전통을 헐뜯고 거세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한 력사적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조선혁명의 중진들로 자라나고있는 오늘 혁명전통교양문제는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혁명의 길이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고 준엄하였지만 위대한 명맥이 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백전백승하여온 위대한 전통을 우리는 대대로 명줄처럼 이어가야 한다.

번영하는 우리 조국은 항일유격대원들이 백두밀림의 산발을 피로 물들이며 그려보던 리상과 념원이 그대로 꽃펴난 현실이며 전세대들이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일떠세우고 지켜낸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이다.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과 인민들이 얼마나 갈비싼 대가로 오늘을 마련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투쟁행정에서 혁명전통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피어린 혁명의 길에서 마련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하고 고수해온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긍지이며 자랑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령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또다시 찾으신 건설장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는 은정속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

진정 온 나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걸고걸으시는 우리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우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한개 도시와 맞먹는 려명거리는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섰다.

올해 1월 려명거리건설장을 돌아보신 때로부터 두달도 채 안되는 지난 3월 어느날 이른새벽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이곳을 찾으시였다.

인민들에게 문명한 새 거리를 하루빨리 안겨주고싶은 마음이 얼마나 불같으시였으면 우리 원수님 인민들이 아직 단잠에 들어있던 그 시간에 건설장에 오시였으랴.

이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추운 날씨에도 타일붙이기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70층살림집 외벽타일붙이기를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끝내였는데 정말 보기 좋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볼수록 장관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더 멋있을것이라고 하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려명거리를 보고 또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려명거리를 사회주의문명이 웅축된 거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나는 인민의 거리로 되게 하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와서였다.

새로 일떠서는 거리가 인민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시하는 거리로 되게 하시려고 수십차례에 걸쳐 무려 1390여건의 형성안을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절까지는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이 마지막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처 내달림으로써 려명거리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고 다시금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건설장에 또다시 새기신 현지지도의 자욱.

그것은 이 땅에 하루빨리 인민의 행복이 한껏 넘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앞당겨오실 드팀없는 의지로 새기신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자욱이였다.

사람들이여, 려명거리의 초고층살림집의 계단과 출입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것을 숭엄히 대하시라.

려명거리의 그 어디에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열과 정이 뜨겁게 슴배여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라.

본사기자 정순학

지상연단

모두다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가 되자!

금골의 영웅소대처럼 작업반장들이 앞장서서 증산의 돌격로를 열어제끼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금골의 평범한 광부들을 영웅소대동지들이라고 뜨겁게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경험을 따라배워 만리마선구자집단의 영예를 쟁취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5월 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에 대한 심효모임을 통해 작업반이 만리마를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것은 작업반의 키수이며 키잡이인 작업반장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안았다고 하면서 증산투쟁의 앞장에 설 결의를 다지고있는 인민경제 중요부문 초급일군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만리마시대의 작업반장과 나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키다란 기쁨을 드린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이야기를 당보지면을 통해 보면서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말단전투단위를 책임진 작업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작업반의 첫 만리마기수는 누가 되여야 하는가를 높뛰는 심장으로 새겨안았다.

고경찬영웅소대가 생산조건이 어렵고 기능공력량이 부족한 속에서도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닐수 있은것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작업반을 승리의 지름길로만 이끌어간 소대장의 높은 실력이 있었기때문이다.

하나의 천공배치를 해도 천가를 적게 들이면서 많은 광석을 떨굴수 있는 묘리를 찾아내고 독특한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착암기도 쉽쓸 모르던 신입광부들을 단 몇달안에 자기 몫의 2배, 3배를 수행하는 혁신자로 키워낸 고경찬소대장의 역할은 작업반이 만리마를 타자면 작업반장부터 만리마기수가 돼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리마시대의 작업반장과 나,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놓고보니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작업반장은 결코 작업조직이나 하고 지시나 하는 초급일군이 아니다. 만리마시대의 작업반장은 고경찬영웅소대장처럼 자기의 두뇌와 피라는 사색으로 작업반이 수행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를 대담하게 내걸줄 알며 그 목표를 위해 가장 빠른 지름길을 열고 마지막대원까지 새 기록의 창조자로 만들줄 아는 실력가형의 초급일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소대는 돈산쟁을 대형화, 현대화하는 마지막돌격전투를 벌리고있다. 이 전투만 결속하면 8년전 몰소 석수렬이 지는 막장길을 걸으시며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된다.

광산일군들의 힘있는 뒤받침속에 지금 우리 소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매일 자기 정량의 근 2배에 달하는 굴진과제를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고경찬영웅소대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우리모두에 대한 크나큰 고무와 기대로 심장깊이 간직한 우리 소대 굴진공들은 돈산쟁의 대형화, 현대화를 위대한 장군님의 광산현지지도기념일인 10월 15일을 계기로 완공할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신심은 백배해지고 용기가 용솟음친다.

고경찬영웅소대장처럼 나자신부터 만리마기수가 되여 소대원들을 신화창조의 주인공으로, 시대의 선구자집단으로 이끌어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룡양광산 갱건설굴진소대
소대장 김 태 영

돌격대, 나를 따라 앞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김력의 고경찬영웅소대가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이 되였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땟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이야기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최고굴진실적을 기록할것을 결의해나선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의 삶과 투쟁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언제나 늘 마음뿐이였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보니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여 련합기업소 작업반들의 면앞자리를 또다시 차지했다고 자랑스럽게 한해 총화를 했던 자신들이 부끄럽고 지어 죄스럽기까지 하였다는 고경찬영웅소대원들, 당보에 실린 기사의 이 대목을 읽느라니 남들보다 힘든 굴진막장에서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해왔고 또 올해는 성적으로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 굴진계획을 제일먼저 완수했다고 자부해온 우리가 참으로 민망스러웠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 경험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우리 당이 바라는 선구자작업반대렬에 들어서기 위해 열백배로 쫄달음질 각오가 온몸에 차고넘친다.

고경찬영웅소대처럼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을 다기능공으로 준비시키고 과학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작업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등 더 높은 굴진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가 지휘관인 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수령절사용위의 길에 생을 서슴없이 바친 청년공산주의자 김혁동지처럼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의 본분을 다하려는 우리 돌격대원들의 혁명열, 투쟁열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고경찬영웅소대장처럼 전투작전과 지휘를 앞질러가며 짜고들고 돌격대안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우리 돌격대가 지난해에 비해 근 1.5배나 높아진 올해 굴진목표를 이미 계획했던 청년절이 아니라 한달 앞당겨 전승절까지 끝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

《나와 우리 소대》라는 집단주의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운 고경찬영웅소대처럼 돌격대안에 동지애로 굳게 뭉친 열혈의 정이 차넘치게 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투사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김혁청년돌격대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여나가겠다.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대장 차 명 수

신심과 용기는 백배해

요즘 우리 굴착기초소의 전투원들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에 매일매일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보군 한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하고 우리 당에 기쁨드린 영웅소대원들처럼 우리가 오늘 일하였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며 우리도 당과 수령이 알고 조국이 내세워주는 시대의 선구자집단이 되겠다는 비상한 자각과 의지를 가다듬는다.

사실 지난 3월 30일까지 초소앞에 맡겨진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는것으로 하여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들이다.

그러나 고경찬영웅소대의 눈부신 성과는 우리들을 백배, 천배로 분발케 하고있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자신들의 헌신적투쟁으로 만리마시대에 삶을 빛내이자면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서 순간의 자만과 해이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우리모두에게 똑똑히 새겨주었다.

단 한달만이라도 자재와 설비를 가득가득 쌓아놓고 압축공기를 물쓰듯 하며 광석을 땅땅 케면 원이 없겠다는 고경찬영웅소대 광부들의 심정은 그들이 실지 어떤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안아왔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아무리 조건이 나쁘고 제기되는 애로가 많다 하여도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할 때 빛나지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요새도 없으며 만리마시대는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이 기사에 대한 심효모임을 통하여 신념으로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우리 굴착기초소에서는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년간계획을 철쩐 앞당겨 끝내고 올해에 기어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겠다.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로의 경험을 적극 교환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굴착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과학기술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부단히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겠다.

《나와 우리 소대》라는 집단주의인생관으로 심장을 불태운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기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고대와 고대간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감으로써 철산봉이 자랑하는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남먼저 지닐것을 굳게 결의한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
문광산 811호굴착기
초소장 김 창 범

농업전선의 선구자작업반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고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닌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소식은 지금 우리 작업반원들 모두의 가슴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자기 단위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증산성과, 기적창조의 열매로 빛내여가는 작업반들은 그 어디에 있든 위대한 수령님들과 영원히 한피줄을 잇고 사는 시대의 선구자작업반의 값높은 영예를 지닐수 있다는것을 보여준 그들의 실천투쟁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부신 기적과 혁신창조의 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고무추동해주고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작업반포전마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 혁명에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는 열혈의 선구자집단이 필요할 때 위대한 수령님들과 땟은 정을 승리의 보고로 변함없이 이어가며 시대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김력의 광부작업반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우리도 농업전선의 만리마시대 선구자작업반이 되자!

우리는 뜻깊은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정보당 10t이상의 알곡을 생산하겠다. 정보당 수십t의 거름을 실어내고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담보를 마련한 기세드높이 과감한 돌격투쟁을 벌리겠다.

작업반원들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포전을 가꾸어간다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땀방울을 바쳐나가도록 그들의 생산열의를 최대로 고조시켜나가겠다.

특히 작업반장의 실력에 의하여 그 단위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신부터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 좋은 농사경험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나가는 능숙한 지휘관으로 준비해나가겠다.

그리하여 작업반원들모두가 쌀로써 당중앙을 결사옹위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애국농민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어이 만리마시대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겠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김 동 렬

다수확운동의 기수가 되겠다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닌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이야말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키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참된 전형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지하 800m깊이의 막장에 당앞에 결의한 전투목표를 제시해놓고 천하제일강국의 패일을 내다보며 맹렬한 백열전을 벌린 이들의 정신세계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어떻게 들어서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작업반원들도 고경찬영웅소대원들처럼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당중앙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지금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로 향하는 우리 작업반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모두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본받아 자기 혁명초소에 대한 애착과 맡은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매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당면하게는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모판관리공들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하는데서 모를 잘 기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온도와 물관리, 영양관리, 통풍조건보장 등 모판관리를 주인답게 해나가고있다.

모든 작업반원들이 협동밭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포전별, 품종별생육상태와 기후조건에 맞게 모내기준비를 알심있게 하고있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한줌의 흙, 한포기의 곡식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진한 구슬땀을 쏟아붓는 애국농민이 될 열의로 온 작업반이 끓고있다.

우리는 작업반원들모두가 지닌 애국의 열정을 안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 올해 농사의 돌파구를 열겠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을 통하여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우리는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력사적인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

철산군 명암협동농장
제6작업반 반장 정 상 덕

증송의 기적소리로 화답하리

조선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완수하는 놀라운 기적적성과를 이룩한 김력의 고경찬영웅소대원들,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닌 이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는 지금 우리 정주기관차대 승무원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지하 수백m의 막장에 당앞에 결의한 전투목표를 제시해놓고 맹렬한 백열전을 벌린 이들의 투쟁이야기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점령 못할 목표가 없다는 진리를 심장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기사에도 언급되였지만 작업반은 생산이 벌어지는 말단전투단위이며 만리마시대는 바로 이 매개 작업반들의 성과와 전진으로 더욱 빛나게 된다.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닌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전국의 모든 작업반원들이 뜻깊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해 폭풍치며 내달릴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우리 《붉은기》5027호 승무원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겠다.

필요한 기공구들을 충분히 갖추고 운행중 기관차기술관리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보다 짜고들며 그 어느 철길구간에서나 표준운전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수 있게 준비해나가겠다.

5.18무사고정시전인초과운동을 발기해나섰던 우리 기관차대의 전세대들처럼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는데서 기치를 들고 앞장에 서며 자진소운전과 자진차갈이, 전인초과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물동을 수송하겠다.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장동무의 헌신적인 투쟁은 만리마시대의 작업반장들은 어떤 사람이여야 하며 창조와 변혁으로 벅찬 오늘의 투쟁에서 작업반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하고있다.

저는 고경찬영웅소대장처럼 전투작전과 지휘를 앞질러가며 짜고들고 승무원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작업반앞에 맡겨진 년간 화물수송계획을 8월까지 앞당겨 끝내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떳떳이 맞이하겠다는것을 결의한다.

정주기관차대 《붉은기》
5027호 책임기관사
백 봉 길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만리마시대의 선구자작업반의 영예를 지닐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에서

혁명의 만년재보를 길이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온 나라 강산을 진감하는 속에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가기 위한 애국사업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당조직에서는 혁명사적부문의 위력한 건설부대, 공로있는 집단으로 내세워준 당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보답의 한길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대동강사적지건설사업소와 평안북도려단을 전형단위로 정한 지도국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적건설방침과 주체적건축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며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당정책옹위의 길에 한몸을 초불처럼 쨩그리 불태우는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전투장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대동강사적지건설사업소에서는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는 과학이다》에 대한 독보사업을 심효성있게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억척불변의 신념을 안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전의 집중포화, 명중포화를 힘있게 들이대고있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물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평안북도려단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력량으로 포평혁명사적지 개건보수공사를 제기일내에 끝낼수 있는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튼튼한 후방토대와 생활조건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단계별목표밑에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황해북도려단에서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기 위한 청입식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드세게 벌리고있으며 자강도려단에서는 여러 답사숙영소들을 비롯하여 올해 예견된 대상공사과 제수행을 위한 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보장을 예견성있게 따라세우고있다.

보장부문의 종업원들도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고있다.

동력보장을 담당한 전력종대의 전투원들은 공사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각종 변압기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는 동시에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대상공사완공에 적극 이바지해가고있다.

대동강돌가공사업소의 생산자들은 맡은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자기들의 보람찬 투쟁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룡강화강석광산의 로동계급도 삼지연지구를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공사장들에 필요한 돌가공품들을 천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운수기동대에서는 단위의 구체적특성과 조건에 맞게 아침독보시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헌시키 당정책적요구를 종업원들속에 해설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수리소대들의 역할을 높여 륜전기재들의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고있다.

시공조직설계연구소의 기술일군들도 자강력은 곧 과학기술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대상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지금 지도국의 전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집일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보로 빛내이며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열의로 가슴불태우며 하루하루를 충정의 날과 날로 이어가고있다.

심 학 철

바다를 효과있게 리용하니 얼마나 좋은가

천내군을 찾아서

예로부터 당치리라고 하면 굴이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굴자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랑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해삼양식에서 성공하여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성게, 미역양식연구도 적극 진행되여 바다가양식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바다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키면서 해마다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 천내군의 자랑찬 현실은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바다가양식을 많이 하면 바다어업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앉은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마선을 타고 해삼양식장으로 향하면 우리의 눈앞에 처음으로 안겨온것은 메줄에 줄줄이 달린 미역을 들어올리는 김두성, 조승일, 리휘련동무들의 작업모습이였다.

《이번에 제배시험에서 성공한 바다나물들입니다. 이제는 바다가양식을 본때있게 내밀수 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천내군당위원회 일군인 정상호동무는 이렇게 첫머리를 떼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곳은 해삼과 미역양식 등에 알맞춘 해역이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물온도의 변화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그 연구사업을 시작했다가 결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것으로 하여 군의 책임일군들이 바다가양식을 통이 크게 내밀것을 결심했을 때 도리머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낀 곳에서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은 결코 조건이 좋으면 관철하고 불리하면 관철하지 않아도 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당일군의 말을 듣는 사이에 어느덧 전마선은 해삼양식장에 다달았다. 동해의 푸른 물이 정답게 배전을 치는데 《첨벙-》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간 잠수공 방은길동무가 불과 30분도 안되는 사이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해삼들을 한아름이나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솟구쳐올랐다. 그 해삼들속에는 여러달전에 놓아준것도 있고 1년, 2년생도 있었다. 3년생 해삼은 얼마나 큰지 어른들의 주먹을 두개 합친것만 했다.

동승길에 오른 수산연구원 동해바다가양식연구소 연구사인 황명진동무는 그 해삼들을 희한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들이 처음 연구사업에 달라붙었을 때 불리한 조건으로 하여 실패에 실패가 거듭 뒤따랐다.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해온 새끼해삼들이 시험구역에 잠그어놓은 드레들에서 무리로 죽는 광경앞에서 맥을 놓고 주저앉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오죽했으면 이 고장의 토배기로인들까지도 어기서 해삼양식만은 안된다고, 헛고생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겠는가.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준 사람은 다름아닌 군당책임일군이였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백번 실패하면 백번 다시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성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이고 후대들에게 자기 고장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어 넘겨주는 길이라고 절절히 이야기하던 일군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가양식에 남달리 조예가 깊은 최영남동무로부터 연구사업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연구조건은 물론 살림집도 지어주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늘 알아보며 제때에 풀어준 군당책임일군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수 있었다.

년중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고장으로 알려진 강원도의 서만에서 이들이 연구사업과정에 애를 먹은 문제들중의 하나는 비가 오면 황물현상이 뒤따르는것이였다. 해삼들이 무리로 죽는 원인은 바로 이 황물현상에 있었다. 이들은 실패에서 교훈과 방도를 부단히 찾으며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최근년간에 아무리 비가 와도 바다바닥에서부터 수심m높이에서는 황물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을 밝혀냈다.

그리하여 종전과 같이 드레에 해삼을 넣어 키르지 않고 바다바닥에 놓아기르는 새로운 양식방법을 찾아내게 되였다. 이들은 자연굴이 자라는 곳에 해삼을 넣어주어 굴의 배설물을 해삼이 먹도록 함으로써 먹이를 따로 주지 않고도 손쉽게 해삼양식을 할수 있는 방도도 찾아내고야말았다고 한다.

얼마후 물에 오른 우리는 해삼배양장도 돌아보았다. 전물안에는 암려파기, 거품분리기를 비롯한 해삼배양에 필요한 설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이 하나하나의 설비들이 연구사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군에서 자체로 만든것이라는 사실도 좋았지만 더욱 우리의 주목을 끈것은 그 설비들로 구축된 단긴형물순환식양어체계였다. 한번 리용한 바다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려과하여 쓸수 있게 구축하여놓은 이 체계의 우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일반적으로 배양장에서는 새끼해삼들만 키르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 배양장은 새끼해삼배양은 물론이고 어미해삼들의 양식까지 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군일군들은 해삼양식에서 단 한번의 실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황물현상이 심해져 바다바닥까지 침범할수 있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배양장을 통이 크게 건설하였다. 그리고 바다물조건이 혹 위험수치를 기록하는 경우 해삼들을 즉시 자연양식장에서 배양장으로 옮겨 황물현상이 없어질 때까지 안전하게 기를수 있는 단긴형물순환식양어체계를 구축하였다.

미역과 해삼양식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지금 군에서는 성게를 양식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힘있게 추진되고있는데 연구사들모두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성공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있다.

예로부터 유명한 굴자랑과 함께 해삼과 미역자랑이 늘어나고 또 얼마후이면 성게자랑까지 겹치게 될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서만의 자연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그 자연은 사람들에게 절로 덕을 주지 않는다.

천내군일군들과 근로자들처럼 자기 고장의 바다를 살점처럼 사랑하고 그것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의 봉마를 타고 애써 노력할 때 황금해의 자랑이 늘어나고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취재를 통해 깊이 느끼게 되였다.

《1년후에 꼭 다시 와보십시오.》

신심넘친 황명진동무의 이 말에서 우리는 황금해의 자랑이 더욱 늘어날 래일을 확신하며 흥겨운 마음안고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리 영 민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이런 교원혁명가들이 있어 사회주의교육제도가 굳건하다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최영애동무에 대한 이야기

평성시 덕성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최영애동무는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43년간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오고있는 오랜 교육자이다. 최영애동무가 교단에 첫 자욱을 새긴 1974년은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던 력사적인 시기였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첫해, 위대한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그는 교육부문에서 처음으로 선군시대공로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는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적혁명가입니다.》

한생을 고스란히 교단에 바친 한 교육자의 삶을 우리 당은 어찌하여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는것인가.

영원한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것은 한시절 학생들에게서만 듣게 되는 부름이 아니다. 최영애동무의 제자들은 50대에 이른 오늘까지도 옛 담임교원을 가리켜 우리 선생님이라고 정답이 부르고 있다.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스승의 모습은 과연 어떤것이던가.

그들은 오늘도 수십년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마친 최영애동무가 학교에 안고왔던 백두산의 천지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천리길을 멀다 않고 안고온 백두산천지의 물을 보고 환성을 올리는 학생들에게 최영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학생동무들, 항일혁명투사들은 이 백두산천지의 물처럼 맑고 깨끗한 충정으로 아버지원수님을 받들어모시였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변함없는 충정을 간직한 아버지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됩시다.》

이어 최영애동무는 학생들의 작은 고루마다에 천지의 맑은 물을 가득가득 따라주었다. 그때로부터 10년후 최영애동무는 그 학생들가운데서 제일 선참으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제자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저는 입당을 하면서 붉은 당기앞에서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실할것을 엄숙히 맹세다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에게 천지의 맑은 물을 따라주면서 언제나 백두산을 잊지 말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최영애동무는 그 편지를 보고 또 보며 밤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새 세대들이 혁명의 계승자들로 자라는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기뻤다.

목란, 소학교 자연교과서에 나오는 식물이다.

수십년전 이른봄의 어느날 어떻게 하면 식물 하나를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에게 뜨거운 조국애를 진하게 심어줄것인가 생각하던 최영애동무는 산림부문에서 일하는 학부형을 찾아갔다. 밤이 깊어 뜻밖에 나타난 교원의 이야기를 듣는 학부형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튿날 그들은 수십리 떨어진 삿갓봉의 양지바른 기슭에 올랐다.

그곳에서 정성껏 떠온 목란꽃나무들을 최영애동무는 학교주변에도 심고 장수산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에도 심었다.

그로부터 얼마후 아침저녁 정성들여 가꾼 보람이 있어 목란꽃은 철을 알당겨 피여났다. 활짝 피여난 목란꽃송이들을 안고 최영애동무는 학생들앞에 나섰다.

《학생동무들,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목란꽃입니다.》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는 흰눈처럼 희디흰 목란꽃에 가있었다. 그날 최영애동무는 목란꽃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조국애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는 풍금소리를 높이 울렸다. 그에 맞추어 씩씩하게 노래부르는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우리 나라의 국화 목란꽃에 대한 긍지가 넘쳐났다.

꽃송이 꽃송이 목란꽃송이
눈처럼 하얗게 피여났어요
…
아 원수님께 곱게 핀 목란꽃
꽃다발 엮어서 삼가 드려요

참으로 최영애동무는 학생들을 꽃이라면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나무라면 눈속에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쳤다.

교원으로 배치되여온 첫해부터 7년세월을 4학년 학급들만 담임하였고 학급학생모두를 최우등생들로 키웠다는 사실을 놓고도 교육자로서 그의 자세가 어떠했으며 당이 맡겨준 교단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잘 알수 있다. 그의 이런 노력은 부교장을 거쳐 교장사업을 시작한 10년전부터 더욱 완강하고 줄기차졌다.

학교의 교원 누구나가 우리 교장선생님이라고 존경담아 부르는 최영애동무, 그들에게 있어서 최영애교장은 단순히 학교를 책임진 일군이기 전에 교육자의 첫걸음을 곧바로 떼고 그 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준 고마운 스승이였다.

교원들에게는 제자들이 자랑이고 교장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원들이 자랑이다. 이것이 최영애동무의 가슴속에 간직되여있는 좌우명이고 인생관이였다.

몇해전 어느날 학교를 돌아보던 최영애동무는 한 교원이 령 빈 교실에 앉아 조용히 눈금을 찍는것을 보게 되였다. 사연을 알아보니 그 신임교원이 담임한 학급이 학교적인 실력판정에서 밑 뒤자리를 차지했던것이다.

마치 친어머니앞에서처럼 그 교원은 명절날, 휴식날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애써온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우리 학급 학생들은 안될것 같습니다.》

순간 최영애교장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려앉는 듯싶었다.

교원이 학생들을 나무라다니?!

그날 최영애동무는 그에게 좋고 나쁜 학생들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고, 특히 소학교교원인 우리들은 소학생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제우쳐주었다. 그러면서 칠판 가득 제시한 그날숙제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교원의 높은 실력도 옳은 교수방법이 결합될 때에만 빛이 나는법입니다.》

그후 최영애동무는 그가 옳바른 교수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해 밤낮도록 교수준비도 같이 하고 교수참관도 자주 하였으며 교수경연들에도 적극 내세워주었다.

이런 나날에 그는 학교적으로 손꼽히는 교원으로 자라났으며 지난해에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을 창조하여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도록 하였다.

20대 초엽에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여 교육부문적으로 과분을 입으셨던 김설향동무에게도 남다른 가정사정으로 마음이 흔들리던 때에 어려차례 자기의 집을 찾아왔던 최영애교장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때 최영애동무는 처녀교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절절히 말했다고 한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교원들이 선 교단은 당의 교단, 혁명의 교단이라고 교시하시였어요. 그런 교단을 어떻게 쉽게 떠날수 있겠어요.》

그 말을 외우며 교장선생님은 고난의 시기에도 교단을 떠나지 않던 일들이 떠올라 저도모르게 말끝을 흐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김설향동무의 목소리도 어느새 젖어들었다.

최영애동무는 이렇게 중대장이 중대를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만들기 위해 애쓰듯이 교원대렬을 훌륭히 꾸리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쳤다.

학교에는 전국적으로 교수를 잘하기로 소문난 김승선, 김승복쌍둥이자매가 있다. 갓 30대에 들어선 그들이 이렇듯 놀랍게 성장하게 된데도 최영애동무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김승선, 김승복자매는 대학시절에 실력이 높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영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이런 사람들이 교단에 서야 학생들을 더 훌륭히 키울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해당 일군들도 만나고 자매의 가정을 찾아 부모도 만났다. 최영애동무의 진정은 끝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자매가 교원으로 배치되여왔을 때에는 우수한 교원들을 불여 빠른 시일안에 높은 교육자적자질과 풍모를 갖추도록 이끌어주었다. 쌍둥이자매는 이악하게 노력하여 1년만에는 시적인 교수경연에서, 그후에는 도적인 교수경연에서 어려번 1등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학교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자라났다.

젊은 시절처럼 해마다 진행되는 교장들의 실력판정에서 언제나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최영애동무, 그의 모습은 학교 교원들의 거울로, 힘있는 교무로 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 시안의 적지 않은 소학교와 유치원, 학원의 교장, 원장들은 덕성소학교 교원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4월 어느날 최영애동무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왔을 때의 일이다.

회의휴식시간에 누군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는 최영애동무의 제자인 어느 한 군의 당위원장이였다. 뜻밖의 상봉에 어쩔줄 몰라하는 옛 스승의 모습을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여겨보던 그는 곁에 서있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소개하였다.

《이분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순간 박수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훌륭한 제자를 키운 참된 교육자에게 보내는 찬사였고 오랜 세월 스승의 모습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사는 한 당일군에 대한 존경이였으며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꽃피워준 사회주의교육제도에 드리는 열렬한 칭송이였다.

우리 선생님이란 부름은 결코 교단에 섰다고 하여 절로 생기고 영원한 부름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학생들과 제자들은 물론 교원들과 학부형들도 자기 일처럼 도와나섰다.

그러던 어느날 최영애동무는 뜻밖의 일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였다. 그때의 안타깝던 심정을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다.

《일어나야 한다. 우리 동무들이 나를 쳐다보고있지 않는가.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나의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기어이 새 교사를 일떠세우고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리라.》

그로부터 얼마후인 새 학기 첫날 아침, 마침내 번듯하게 일떠선 6층 새 교사로 학생들이 들어섰다.

교직원들도 학부형들도 교사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추억들을 더듬으며 깊은 감회에 잠겨있던 그 시각 최영애동무의 젖은 눈길은 학교앞 큰길을 어루쓸고있었다. 해빛이 따사롭게 비쳐드는 그 길을 바라보는 최영애동무의 입가에서는 저도모르게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헌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 우리 학교를 보아주셨으면…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새 교사가 일떠섰다고 얼마나 기뻐하실가.…》

마음속에 늘 영광의 그 순간을 그리며 사는 그가 어찌 성과에 만족할수 있으랴. 그는 먼저 어 학교에 콤퓨터구내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모든 교실들을 교육학적요구대로 꾸리고 다기능화된 교실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어디 가나 우리 학교 교원들이 제일 환해야 하고 그들에게 근심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얼굴빛도 제일 밝아야 한다는것은 최영애교장의 지론이다.

최영애동무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정을 쏟듯이 교원들모두를 품어안고 그들을 당이 바라는 참된 교육자들로 키우기 위해 온갖 진정을 다 바쳐왔다.

지금도 학교의 교직원들은 그 나날 세멘트공장들과 강철생산기지들을 찾아 먼길도 주저없이 달려가던 최영애교장에 대해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언제인가 최영애동무가 과철을 싣고 어느 한 강철공장에 갔을 때였다. 자동부림장치가 고장나 부득불 한차분이나 되는 과철을 인력으로 부리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최영애동무는 손끝에 피나도록 운전사와 함께 과철을 부리우기 시작했다. 그날 최영애동무를 도우려고 달려왔던 공장로동자들은 그가 예순을 가까이한 소학교교장이라는 사실앞에서 고개를 숙이였다고 한다.

교수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면서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새 교사를 일떠세우기 위해 아글타글 뛰고 또 뛰는 최영애동무와 교직원들의 열정에 감복되여 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는 물론 후원단체일군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체적산업미술

태양절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개막된 국가산업미술전시회는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체적산업미술의 발전면모를 과시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전시회장에 출품된 수천점의 각종 도안들과 실현제품들, 제품모형들은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 5년간 산업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불타는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온 과정에 이룩한 창조적산물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수한 도안이 실현되어 나온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산업미술을 주체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마련된 실현제품들을 참관자들이 수요에 따라 구입하여 리용하게 함으로써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산업미술의 생활력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한것이 이번 전시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의 결합

산업미술은 사람들의 생활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될뿐아니라 물질생활에 대한 그들의 미적요구를 실현하는 미술형식인것만큼 그 도안은 실용적인 측면과 미적측면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창작하여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산업미술도안의 실현제품들은 지난 시기에 나온 제품들보다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제품들이다. 당의 승고한 후대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는 학생가방제품들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리용하는 가방은 여러가지 색갈의 천으로 알락달락하게 만들어졌으며 대학생가방은 점잖으면서도 고상한 색갈의 천으로 만들어졌다. 뿐만아니라 《소나무》상표도 가방색갈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색갈로 되여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우리 나라 만화인물과 동물그림장식을 붙일수 있게 하였다. 가방도안창작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가르쳐주시며 산업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시야를 넓히도록 몸소 세계적인 학생가방도안자료와 견본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학생가방들은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훌륭한 제품들이다.

학생가방만이 아니다.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김치의 상표도안들도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여있어 참관자들에게서 호평을 받고있다.

민족전통음식의 특성이 살아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상표만 보고도 제품의 배운맛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만든 통배추김치상표도안, 깍두기상표도안, 총각김치상표도안을 비롯한 각종 김치상표도안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훌륭하다. 배운맛, 덜배운맛이라고 쓴 상표도안의 글씨체도 멋있고 생산년도와 보관기일, 보관조건, 카로리표기도 국제표준대로 했기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아주 편리하다.

실용적측면과 미적측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현제품들과 산업미술도안들은 온 나라 천만자식을 한품에 안아 돌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창작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산업미술부문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피타는 노력이 안아온 소중한 창조물들이다.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된 마크도안들

산업미술도안창작에서는 마크만 척 보고도 어떤 사명을 지닌 건물인지, 무슨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인지 누구나 알수 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자면 마크도안들을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되게 그려야 한다.

이미 현실에 도입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을 보면 창작가가 대담하게 말의 앞목형상을 없애고 말대가리와 뒤목, 흩날리는 말갈기, 이 세가지 요소를 현대감이 나면서도 민족적특성이 살아나게 조선화의 단붓질법으로 형상하였다는것이 확연히 알린다. 말의 전체를 형상하지 않고도 누구에게나 승마구락부의 표상을 느끼도록 조선산업미술창작사 3창작단 단장 천영일동무가 창작한 미림승마구락부마크도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산업미술대학 학장 김천금동무가 출품한 과학기술전당마크도안, 연풍과학자휴양소마크도안도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창작되여 현실에 도입된 우수한 도안들이다. 과학기술전당마크에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전자궤도와 세계를 내다보며 끊임없이 지식의 탑을 쌓으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눈을 형상한것이 아주 특색있다. 눈동공은 CD테체 즉 자료기지를 의미하며 전자들은 나라의 각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형상한것이다. 전자들이 도는 자리길을 나타내는 선은 각 지역의 과학기술보급기지와 전당을 서로 련결하는 정보자료보급선을 의미한다. 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수많은 산업미술도안들도 모두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창작된것이다.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들이 출품한 국가우주개발국마크도안, 자연박물관마크도안을 비롯한 수많은 마크도안들에도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잘 반영되여있다.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을 도안에 잘 반영하는데서 서로 다른 도안의 우수한 측면들을 옳게 결합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갈마비행장마크도안을 완성하는 과정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평양미술종합대학 산업미술학부의 교원 김춘성, 리은향동무와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정일학동무가 원래 창작했던 초안을 지도해주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개 안에서 형상의 좋은 요소들을 결합하여 완성함에 대한 명철한 형상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해, 갈매기, 푸른 바다, 명사십리의 백사장, 이 형상요소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도안을 완성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된 수많은 마크도안들이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것은 주체적산업미술을 인민들의 기호와 시대적요구, 세계적추세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자못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자력자강은 우리의것을 빛내이는 길

체육복장도안, 새형의 80hp뜨락또르도안, 지하전동차도안들은 체육강국, 경제강국에로 향한 시대의 맥박을 느낄수 있게 하는 우수한 도안들이며 오직 자력자강만이 우리의것을 빛내이는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 2창작단 실장 리경아동무가 창작한 체육복장도안을 보면 휘날리는 우리의 공화국기가 대뜸 련상된다.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물들어있어 붉고 당을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이 깃들어있어 희며 우리의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과 포부가 비껴있어 푸른 람홍색공화국기!

그 공화국기가 휘날리는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체육복을 입은 미더운 체육선수들의 가슴에 차넘치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그대로 우리 인민모두의 심장에도 와닿는것만 같다.

기계공업성 산업미술창작사 창작가 김천수, 조성민동무가 내놓은 새형의 80hp뜨락또르도안과 모형, 평양미술종합대학 산업미술학부의 교원 김태식, 한영남동무가 내놓은 지하전동차도안들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침에 대한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한 훌륭한 도안과 모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정말 멋있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철마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새형의 80hp뜨락또르에 대한 형태도안창작에서 창작가는 견본모방의 길이 아니라 우리 식의 개발창조의 길을 택했고 경제적실용성과 리용자들의 미적요구를 결합시키는 문제도 다 우리 식으로 해결했다. 운전실형태를 현대적미감이 나면서도 안전공학적원칙에 맞게 착상하였고 뜨락또르의 기본요소와 부분품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서도 실지 작업을 할 때 운전수들의 활동상 편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원칙에서 제품의 형태적구성을 잘한 이 도안은 공업미술의 대표적인 본보기도안이다.

우리의 지하전동차 1호형태도안과 2호형태도안도 나무랄데가 없다.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들수 있게 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적감정에 맞게 공업도안을 훌륭히 완성하는것이 교원들의 목표였다.

그들은 불타는 애국심에 의하여 운전실 앞유리의 곡면처리는 물론 차체 옆면의 색장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성요소가 경쾌하면서도 날아가는듯 한 느낌을 주게 그리고 류사성을 피하면서도 아주 특색있게 완성된 지하전동차 1호와 2호의 형태도안들에는 전진하는 시대의 맥박, 자력자강으로 흥하는 내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어려있다.

우리가 만든 학습장과 가방, 문전기재와 식료품, 우리가 지은 건축물들의 내부장식도안, 우리의 멋이 살아나는 마크와 복장도안들은 산업미술의 각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인 동시에 자력자강으로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길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 *

오늘 우리의 산업미술이 나라의 경제건설을 추동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책후대의 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산업미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체적산업미술발전의 앞길에는 더 큰 승리가 약속되여있다.

산업미술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산업미술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모든 도안들을 새롭고 특색있는 세계적인 명도안들로 창작하여 광명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박사 하경호

◎소백수골8경◎

2월의 축포야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정일봉상공에 눈부신 불보라가 펼쳐지는 2월의 축포야경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인칭송의 신비경이다.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린 혁명의 성산이 터치는 감격의 피성이런듯 경축의 축포성이 휘는듯인 천고의 밀림을 뒤흔들고 오색령롱한 불보라속에 우뚝솟은 정일봉의 용자가 더욱 빛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에 경의를 드리며 와글리는 축포와 더불어 소백수골의 설경은 정녕 아름다움의 최절정을 이룬다. 백두산밀영고향집 하늘가에 펼쳐지는 이 전설적인 화폭이야말로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할 장관중의 장관이다.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던 력사의 그날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두사들의 환호성이 세기를 이어 끊없이 메아리치는듯 태양의 성지가 더욱 격동하고 내 조국의 하늘가에 터져오르는 황홀한 축포의 꽃보라속에 《정일봉》의 글발이 찬연한 빛을 뿌린다.

해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과 마음이 터져올린 위인칭송의 불보라이며 휘는덮인 천리수해에 장쾌하게 울려퍼지는 2월의 축포성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 성스러운 주체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천만군민의 불같은 맹세의 메아리이다.

태양조선의 무궁번영을 축복하며 장쾌한 축포성과 함께 끊없이 메아리치는 《만세!》의 환호성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의 웨침이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비껴있는 2월의 축포야경이야말로 태양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는 절경중의 절경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일영

효능높은 영양단졸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평양시대홍관리국 산하단위에서 생산하고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식의 효능높은 영양단졸입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이 영양단졸입은 단백곤충인 갈색쌀방아벌레번터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기능성영양식품이다.

김강호동무가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단위에서 생산하고있는 영양단졸입은 제3곤충산업시대를 대표하는 기능성영양식품들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단백곤충에 의한 기능성영양식품개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분야가 식료, 제약공업에서 분리되여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형태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곤충산업은 3단계로 발전하여왔다. 제1곤충산업은 누에에 의한 2 000년의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제2곤충산업은 꿀벌에 의한 수백년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제3곤충산업은 단백곤충의 리용으로 발전하고있다. 수많은 곤충가운데서 식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곤충은 수십만종에 달하며 이것은 지구상에서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생물자원으로 되고있다. 번식속도가 빠르고 영양가가 높은 단백곤충가공식품은 그 맛이 좋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량원소가 많으며 기름질이 적은것과 같은 특성이 있어 사람들속에서 21세기의 식품으로 불리우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하고있는 우리 식의 독특한 기능성영양식품인 영양단졸입은 단백곤충을 주원료로 하고 다른 영양원소들을 포함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매우 좋은 생리적활성을 나타낸다.

이 영양단졸입과 그 제조방법은 특허로 등록되였으며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세계적으로 단백곤충리용분야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는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이 영양단졸입에서 중요한 영양원소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뿐아니라 여러 동아시아나라들에서도 이 영양단졸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이 영양단졸입은 세계적인 기능성영양식품들을 당당하게 압도하려는 김강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의 야심만만하고 확고부동한 의지와 창조적열정의 산물이다.

만리마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명제품, 최상의 질이 보장된 우리의 명상품을 키워 내놓겠다는 각오를 안고 연구집단은 두뇌전, 기술전을 벌렸다.

김강호동무는 분초를 쪼개가면서 독특한 영양원소들에 대한 유효성검토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기준량을 확증하였다.

영양단졸입은 단백곤충을 미생물효소처리하여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미량원소 등의 함량을 높인 제품으로서 사람의 몸에서 질병과 쇠약, 로화의 원인으로 되는 로폐물을 제거하고 생리적활성을 급속히 높이는것으로 하여 영양보충, 키크기,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으며 호흡기질병에방, 관절염, 허리와 머리아픔 등의 치료에 리용할수 있는 각종 형태의 효능높은 제품으로 생산되고있다.

우리의 설비, 원료, 자재, 기술에 의하여 완전히 국산화된 영양단졸입은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키를 크게 하고 두뇌를 발달시키며 어른들의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건강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큰 호평을 받고있다.

지배인 김강호동무는 말하였다.

《세계적인 명제품, 명상품은 결코 현대적인 설비가 갖추어진 큰 기업소에서만 내놓을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는 가치있는 성과를 한가지라도 떳떳하게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더욱 다그쳐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이룩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세계에 도전하여 더 좋은 우리의것을 내놓기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구집단은 평양시대홍관리국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속에 단백곤충가공식품분야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지혁철

흑백색영화의 천연색화와 우리 생활

평양영화기술사 창작가, 기술자들과 나눈 이야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흑백색영화의 천연색화기술이 끊임없이 개선되여 사람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흑백색영화의 천연색화실험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평양영화기술사 동화상창작단의 창작가, 기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세계적으로 흑백색영화를 천연색화하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단장 지재남: 흑백색영화를 천연색화한다는것은 이전에 나온 흑백색영화를 천연색영화로 완성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흑백색화상의 매 요소들을 당시의 시대적환경에 맞는 천연색으로 재현시키는것을 말한다.

흑백색영화필림을 수자자료로 번환하고 필림의 물리적마모부분을 제거한 다음 색입히기를 하여 천연색화면으로 재현하는 이 기술은 현재 콤퓨터에 의한 화상처리기술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여 전혀 공개되지 않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는 총방영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다부작흑백색영화를 수백명이 말라붙어 수년간에 걸쳐 천연색화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로력과 품이 많이 들기때문에 발전되였다고 하는 일부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인기있는 흑백색영화들에 대한 천연색화를 진행하고있지만 천연색화프로그람의 핵심기술은 공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우리 나라의 흑백색영화들을 천연색화함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마침내 우리 식의 천연색화프로그람을 개발하였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흑백색영화들을 천연색화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김옥: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의 과학연구집단이 처음으로 우리 식의 천연색화프로그람을 개발한 다음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을 천연색화하였으며 평양영화기술사의 창작가들과 기술자들도 우리 식의 새로운 천연색화프로그람을 자체로 개발하여 예술영화 《피바다》(1, 2부)와 《이름없는 영웅들》(1부-6부)을 천연색화하였다. 흑백색영화를 천연색화하는 과정은 과학기술적측면에서 볼때 천연색화프로그람의 성능을 계속 갱신하는 과정인 동시에 갱신된 프로그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실장 리철명: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개발한 화상처리프로그람에 의존하지 않고 기교합성프로그람, 배경장면 및 정지대상프로그람, 손상된 화상의 수복프로그람, 색화전용화상카공 및 수정프로그람, 1, 2차색교정프로그람을 비롯한 우리 식의 천연색화프로그람들을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화면수복의 정확도를 보장하며 흑백색영화의 천연색화속도를 보다 높이는 방향에서 우리 식의 천연색화프로그람의 성능을 계속 갱신해나가고있다.

기자: 흑백색영화를 우리 식으로 천연색화하는 사업은 어떤 순차로 진행되는가.

계성훈: 이 사업은 장면분할, 화면수복, 기준색갈설정, 색수복, 완성공정의 순차로 진행된다.

장면분할은 수자자료로 번환된 흑백색영화를 매 장면별로 갈라놓는것을 말한다. 매 장면별로 갈라놓았을 때 거기에는 필림상태에서 손상된 부분이 있다. 이 손상된 부분을 깨끗하게 수복하여 원화상처럼 만드는것을 화면수복이라고 한다. 화면수복된 장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기물들, 주위환경에 대한 기준색을 결정하는것을 기준색갈설정이라고 한다. 결정된 기준색갈에 기초하여 매개 장면들에 천연색을 입히는것을 색수복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색수복한 매개 장면들의 전반적인 색조화를 실현하는것이 완성공정이다.

여기서 기본은 기준색갈설정을 잘하는것이다.

기자: 기준색갈설정은 어떻게 하며 흑백색영화를 천연색화하는것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최현미: 보통 한 장면에 등장하는 몇명의 인물들과 기물들, 주위환경에 대한 기준색을 설정한다고 할 때 영화촬영당시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과 소도구, 기물들에 이르기까지 매 대상을 각이한 조명조건에서 찍어놓은 화상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 화상자료들에 기초하여 기준색갈을 설정하는데 등장인물이 몇명밖에 되지 않는 한 장면의 기준색갈을 설정하자고 해도 보통 50-60가지의 천연색화상자료가 필요하다. 등장인물이 많고 화면이 빨리 흐르거나 확대 및 축소되는 장면들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매 색갈부분의 경계처리때문에 100가지이상의 천연색화상자료가 필요하다. 그것을 세밀하게 다 설정해주어야 그에 기초하여 색수복을 하고 완성을 한 천연색화면의 질이 좋아진다. 지금 우리가 천연색화를 실현한 영화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새로 창작된 영화를 보는것 같은 감흥을 느낀다고 말하군 한다.

흑백색영화를 천연색화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우리의 영화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꽃피우는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는 앞으로 흑백색영화의 천연색화를 보다 훌륭하게 실현하여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본사기자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순천구두공장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길이 체득시키기 위하여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데서 노래보급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노래해설과 보급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 사업에서 노래보급책임자들의 역할을 높이고 일군들부터가 앞장서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정이 탔긴 노래들을 보급하였다. 종업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에 넘쳐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이룩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장정숙

새 기술소식

발전하고있는 김가공기술

자료에 의하면 최근 일부 나라들에서는 건강에 좋은 김의 가공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김에는 그의 종류, 성장시기와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당질이 31%, 단백질이 24.1%, 식용섬유가 3.4%, 지방질이 1.5%정도 그리고 비타민과 광물질 등이 들어있다. 김속의 단백질에는 인체에 필요한 9종의 아미노산과 인체의 생리적기능과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김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으며 그중에서 비타민A는 소젖의 7배이고 카로틴과 비타민B_1, 비타민B_2, 비타민E의 함량도 닭알이나 소고기, 남새보다 높다. 또한 김에는 광물질로서 철과 칼시움, 나트리움, 칼리움, 마그네시움, 린이 많이 들어있으며 망간, 아연, 요드 등과 같은 미량원소함량도 매우 높다. 김에는 생리활성물질들도 많이 들어있다.

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것이 밝혀지고 세계적으로 김가공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김가공과 리용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동향은 우선 여러가지 조미김들을 생산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조미김은 전통적인 조미료만을 관김에 발라 건조시켜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여러가지 조미료를 리용한 조미김들을 생산하고있다.

또한 김속의 영양성분들이 인체에 더 많이 흡수되게 하기 위하여 김을 초미분쇄하여 여러가지 식료품생산에 리용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김에서 생리활성물질들을 추출하여 여러가지 약용 및 기능성재료로 리용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한 과외소조 활동을 잘해나가고있다. 김광림 찍음

국제사격경기

국제사격경기는 올림픽경기대회와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세계남치기사격선수권대회, 세계이동목표사격선수권대회, 세계청년보총, 권총사격선수권대회, 세계청년남치기사격선수권대회, 세계컵보총, 권총사격경기대회, 세계컵남치기사격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와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아시아공기총사격선수권대회, 아시아남치기사격선수권대회 등으로 진행되고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4년을 주기로 진행되고있다.

대륙별사격선수권대회들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끝난 다음에 진행되고있다.

올림픽경기대회 사격경기에서는 남자 9개(보총 3개, 권총 3개, 남치기 3개), 녀자 6개(보총 2개, 권총 2개, 남치기 2개)로서 모두 15개 세부종목경기들을 진행하고있다.

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 사격경기에서는 10m공기보총과 10m공기권총사격종목을 가지고 남, 녀, 국제혼성단체로 나뉘여 총 6개의 세부종목경기들을 진행하고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성인급과 청년급으로 나뉘여 개인, 단체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성인급경기에서는 남자 36개(개인, 단체경기에서 각각 보총 6개, 권총 5개, 이동목표 4개, 남치기 3개), 녀자 24개(개인, 단체경기에서 각각 보총 5개, 권총 2개, 이동목표 2개, 남치기 3개)로서 총 60개 세부종목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청년급경기에서는 남자 30개(개인, 단체경기에서 각각 보총 3개, 권총 5개, 이동목표 4개, 남치기 3개), 녀자 20개(개인, 단체경기에서 각각 보총 3개, 권총 2개, 이동목표 2개, 남치기 3개) 세부종목경기들이 벌어지고있다.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는 성인급과 청년급으로 나뉘여 개인과 단체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성인급경기에서는 모두 46개(권총 남자 10개, 녀자 4개, 보총 남자 6개, 녀자 6개, 남치기 남자 4개, 녀자 4개, 이동목표 남자 8개, 녀자 4개) 세부종목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청년급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격협회 부서기장 박영걸

극악무도한 호전적흉계를 드러낸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여일간 남조선전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를 최악의 핵전쟁국면에로 깊숙이 몰아넣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감행된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의 침략성과 모험성을 다시금 세상에 밝힌다.

합동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발로

세기와 년대를 넘어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전적으로 미제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힘》에 의거하여 《전 령토수복》을 꿈꾸는 남조선괴뢰들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미국식민주주의가 지배하게 만든다는것이 력대 미행정부가 추구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운운하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트루먼행정부로부터 우리를 《악의 축》, 《불량배국가》로 제멋대로 규제한 부시행정부를 거쳐 《전략적인내》를 표방한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본목표는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정권전복》이였다.

《전략적인내》에 이어 트럼프행정부가 새로 책정하였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 역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고 끝까지 질식시켜 무조건 붕괴시켜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이에 따라 작성된것이 5단계로 수립된 《5027》북침전면전쟁계획이였고 《외과수술식타격》을 기본으로 한 《5029》작전계획이였으며 《북급변사태》발생을 노린 《5030》전쟁계획이였다.

이 모든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해마다 《림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을 비롯하여 침략전쟁연습들이 강도높게 감행되였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 역시 새로 작성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감행되였다.

작전계획 《5015》는 우리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노린 극히 무모하고 악랄한 북침선제공격계획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은 새로 집권한 트럼프행정부도 우리에 대한 군사적힘의 사용과 고강도제재, 압박으로 일관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험악한 전쟁국면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한 필연적귀결이다.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으로 일관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우리의 신성한 령토강점을 추구하고있는것만큼 앞으로도 침략적인 《키 리졸브》,《독수리》와 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계속 벌어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게 될것이다.

현실은 우리 당이 병진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선견지명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은 천인공노할 특대형국가테로행위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으로 비대해진 남강도 미제의 침략사에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로행위로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시킨 례가 수다하다.

그러나 전시도 아닌 평시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노리고 감행된 침략전쟁연습은 지금까지 없었다.

적들의 호전성과 침략성은 지난 시기 때 들어대던 《년례적훈련》이요, 《망어적훈련》이요 하던 기만적인 간판마저 떼버리고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의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해댈 정도로 극도에 달하고있다.

실제로 적들은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을 위해 이번 연습에 특수작전병력과 수단들을 최대규모로 투입하였다.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악명을 떨친 미제침략군 륙군의 제75공수련대 《레인지》부대, 제1, 19특수전전단(《그린 베레》부대), 공군의 제353특수전단, 해군의 1특수전단 1, 3, 5, 7림들과 륙군 25사단 제1《스트라이커》려단 2개 대대, 66기갑련대 1개 대대, 해병대 제31해병원정단을 비롯한 살인악당들을 모조리 끌어들이였다.

특히 미국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상대측의 《수뇌부제거작전》 등을 전문으로 감행하여 《분갑술을 쓰는 무사부대》로 알려진 《데브그루》(일명 《네이비 씰》6림)와 《백악관별동대》로 불리우는 합동특수전사령부소속 《델타 포스》악마들까지 동원하였다.

상대측지도부암살과 중요대상물타격을 위해 개발하였다는 최신형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과 수직리착륙이 가능한 특수작전기련대들, 특공대무리들의 출격기지로 리용될 해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까지 기동전개하였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특정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작전무력들을 총투입한것은 유독 《키 리졸브》,《독수리》와 같은 북침합동군사연습뿐이다.

적들은 이번 연습에서 특수전무력들과 수단들에 의한 《특수작전》훈련을 실전과 같이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 특수작전부대 살인악당들은 암살방법숙달과 핵심시설파괴를 위한 련합 《참수작전》훈련에 광분해댔고 《B-1B》핵전략폭격기와 《F-22랩터》, 《F-35B》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중타격수단들은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기습적인 정밀타격훈련을 벌려놓았으며 미해병대와 륙군 《스트라이커》려단, 미해군의 대형상륙함들은 불의적인 《정양진격》훈련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립체적으로 특수작전훈련들을 벌리는 한편 연습기간 우리의 수뇌부를 해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였다.

이 땅을 이라크나 리비아, 꼬쏘보로 만들어보려는것이 적들의 흉악한 기도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모험적인 사실상의 특대형국가테로행위였다.

미제가 벌려놓은 이번 연습은 침략의 원흉, 전쟁의 근원, 악의 본산인 미국을 무차별적인 핵선제타격으로 생존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을수 있게 만단의 태세를 갖추는것이 부정의의 국가테로행위를 사전에 짓뭉개버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전면핵전쟁도발행위

이번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방식의 무모성과 로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대규모의 전면핵전쟁연습이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규모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미제가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 진행하는 각종 명목의 군사훈련들에 파견하는 병력을 보면 대체로 수십 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적들은 《키 리졸브》,《독수리 17》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지휘조들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투입하게 되여있는 모든 무력들을 일제히 들이밀었으며 지어 미본토와 유럽에 있는 주요통합군사령부의 각급 지휘조들까지 동원하였다.

연습에 투입된 병력만 하여도 무려 33만 3 000여명에 달하였다.

미제침략군 핵항공모함 《칼빈손》호타격단도 남조선수역에 두차례나 기동전개되였으며 《미쉬건》호를 비롯한 핵잠수함들, 《B-1B》핵전략폭격기와 《F-22랩터》, 《F-35B》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공중비적들이 남조선지역 상공에 떨이어 진입하였다.

지난 시기 합동군사연습들에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는 경우 극비로 취급해오던 미제가 아무려한 주저와 꺼리낌도 없이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한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해 뻐젓이 공개하고있는것은 대조선침략책동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적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중장거리순항유도무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와 스텔스전투기 등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타격수단들에 의거한 무차별적인 고강도선제타격으로 우리의 작전지휘체계와 통신체계, 전쟁잠재력을 일시에 무력화하고 침략야망을 손쉽게 달성해보려는 흉계를 숨기지 않았다.

야간해폭탄투하훈련과 해정밀타격훈련 등이 수시로 벌어지고 핵전략자산들을 포함한 각종 타격수단들의 실동능력을 높이기 위해 태평양지역과 일본, 남조선지역에서 예비훈련이 선행된 사실도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대고 수리아에 미싸일공격을 가한 남강도 미제가 옹근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자산을 다 들이밀고서도 감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지 못한것은 우리의 자위적군력이 무진막강하기때문이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진두지휘하시여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영원불멸할 공헌을 하시였다.

4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우리 혁명무력의 장쾌한 열병식과 전군절의 군종합동타격시위는 그대로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일대과시로 되였다.

우리는 남강도 미제의 끊임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불장난소동에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군사적보복대응전으로, 천인공노할 특대형국가테로행위에는 백악관과 청와대를 재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무차별적인 타격전으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소동에는 정의의 핵무력고도화와 선제적인 핵공격능력강화로 맞서나갈것이다.

이것이 침략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준엄한 경고이다.

세계는 미제의 죄많은 력사가 어떻게 끝장나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남조선괴뢰들의 추악한 잔명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며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망인 조국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군사론평원

외세의존병자들의 미련한 망동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질겁한 남조선괴뢰들이 물본 미친개처럼 날뛰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이 외세와 반공화국대결모의판들을 벌질나게 벌려놓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제11차 남조선미국통합국방협의체회의라는것이 있었다. 여기에서 괴뢰들은 상전과 코를 맞대고 《북의 핵, 미싸일사용억제와 대응능력강화》를 떠벌이며 미국전략무기들의 정례적인 조선반도전개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가용한 압박조치》를 시행할데 대한 광풍이를 하였다.

한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리사국 외무상회의와 남조선미국외교당국자회담, 청와대 안보실장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이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북에 대한 징벌적조치》를 극구 애걸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야말로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고 지랄발광하는 미치광이들의 추태라고 해야 할것이다.

괴뢰들이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각종 반공화국대결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위협의 도수를 무한정 높여보려고 분주랑을 피워대고있는것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우리의 위력앞에 전률한 대국역적들의 필사적발악에 불과하다.

괴뢰역적패당이 외세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한시도 연명할수 없는 가련한 기생충무리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명백히 립증된 오늘까지도 상전의 구린내나는 사타구니에 바싹 기어들며 동족암살을 구걸하고있는 그 미련한 꼴은 볼수록 가소롭기 그지없다.

지금 괴뢰들이 하내비치림 심기고있는 미국도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리우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은 물론 《집대병기》인 수소탄까지 보유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이미 실전배비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본토를 조준경안에 집어넣은 우리의 핵공격수단들은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다.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상실한 천하백치들이 구세주로 믿는 미국을 우리는 이발짜진 승냥이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소 방만행세를 한다고 괴뢰패당이 그런 허세비듭에게 기대를 걸며 민총이 쑥대에 오른것처럼 기고만장해 날뛰고있으니 만사람을 웃기지 않을수 있는가.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명줄이 끊어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최세의 대결병신짝들이 아직도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에 기대를 걸며 누구를 어째보겠다고 분수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지금 괴뢰들은 지지마다 외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기조견지》를 구걸하는가 하면 외교적압박은 《강력한 군사적조치에 의해 뒤받침되여야 한다고 되까리면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북침불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제 운명도 모르는 주제에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괴뢰들의 꼬락서니야말로 참으로 꼴불견이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라고 민심을 짓밟고 대세에 역행하며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에 환장해 돌아치는 괴뢰역적패당이 력사의 쓰레기통에 구겨박히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만신창이 된 괴뢰들이 아무리 《압박조치》니, 《징벌적조치》니 하고 고아대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려여도 비참한 종말의 운명을 비꾸기에는 때가 늦었다.

력사와 현실이 실증해주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르는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는 더욱 강도높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취해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최후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괴뢰역적패당은 무덤속에 들어가도 이것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심 철 영

미국은 력사의 교훈을 명심하고 더이상 날뛰지 말라

총련단체와 일군들 성명, 담화 발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의회가 2일 수십만의 대병력과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여 북침을 노린 핵전쟁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광란적으로 감행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가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온 겨레와 더불어 재일동포들의 가슴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침략적인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막을 내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의 조선동해진입을 강행하고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투하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로 몰아넣는 천인공노할 날강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고 《미니트맨-3》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데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의회는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 전략자산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의분을 담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핵전쟁위기, 정세악화의 원흉은 바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이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암적존재이며 미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민족대단결력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완강한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가지 않는다면 온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6.15의 고귀한 결실마저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켜내는 힘도,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맞서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7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 민족분렬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힘도 오직 민족대단결에 있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의회는 뜻깊은 올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갈것이다.

* *

총련본부 위원장들이 조선반도정세를 핵전쟁결정에로 몰아가고있는 남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어리석은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죄하여 3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 조일연은 조국땅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시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두달동안이나 벌려놓은것으로도 모자라 특수작전부대와 핵전략폭격기 《B-1B》편대를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를 총투입하여 북침을 위한 광란적인 전쟁소동, 핵선제공격놀음을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오늘의 조선은 미국본토까지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무력을 갖춘 핵강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만약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끝내 도발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져져 미국을 붕괴시키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총련 효고현본부 위원장 김춘권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구태의연한 대조선정책을 고안하고 그 무슨 《군사적선택》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 핵전쟁위험에로 몰아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선제타격》을 웨쳐대며 악명높은 핵전략폭격기까지 남조선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투하훈련을 감행하는 등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동방의 핵강국인 선군조선은 미제의 군사적도발이나 제재앞에 굴복하여 휘기를 드는 약소국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힘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담보하는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 반제반미전선의 강위력한 보루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긴장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어머니조국을 굳건히 사수하고 동포들의 삶의 거점인 총련조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위원장 리주학은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전쟁위험은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과 무분별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에 의해 초래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제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으로 짓부셔버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선군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된다고 피력하였다.

백두산강군의 위력앞에 미제는 반드시 참패를 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투쟁기세에 발맞추어 조국과 총련을 사수하기 위한 애족애국활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미보수《정권》은 재앙의 화근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박두한 지금 괴뢰보수패당이 재집권의 더러운 야욕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발악하고있다.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까지 박힌 반역아들은 앞을 다투어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너절하게 놀아대고있다.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상전의 겨드랑이에 더 바싹 기어드는 정치간상배들의 추악한 몰골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을 떠나서 단 한시도 살수 없는 더러운 민족반역의 무리임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 친미역적들이 《정권》의 자리에 들고앉으면 재난과 치욕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은 지난 근 10년간 보수패당의 집권하에 시달려온 남조선인민들이 뼈에 새긴 교훈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남조선미국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떠벌이며 친미사대에 환장하여 돌아친 리명박역도와 그 일당의 망동으로 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현대판식민지로 더욱 전락되였다. 미국산 미친소고기가 남조선에 밀물처럼 쓸어들어오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이 강압체결되여 경제명맥이 미국의 손악에 더욱 철저히 장악되였다.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놀음은 외세의 머슴군이 권력을 차지하면 인민들이 어떤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지난 2008년 리명박역도는 미국의 요구에 아부굴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배척받는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남조선시장에 끌어들이기로 하고 인민들에게 그것을 구입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로써 역도는 미국상전의 말바닥도 주저없이 핥을 추악한 매국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역도의 망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 수많은 축산농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엄중한 위협에 빠져들었다. 역적패당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놀음은 인민들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사대와 외세의존에 미쳐돌아치는 특등매국노, 최세의 역적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반민족적범죄행위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초불을 들고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미친소, 미친 《정부》때문에 민중이 미쳐겠다.》, 《때려잡자! 리명박》이라고 웨치며 역적배들에게 저주와 규탄을 퍼부었다.

리명박역도의 뒤를 이은 박근혜패당의 집권은 친미보수의 리발에서 돋아날것은 매국반역의 독초뿐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해주었다.

박근혜패당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정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구히 주둔시키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시켰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였다.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은 미국대사가 민심의 응당한 징벌을 당했을 때에는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분주랑을 피우며 식민지노복의 비굴한 꼴불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는가 하면 상전의 강요대로 핵전쟁피뢰인 《싸드》배치소동에 광분함으로써 신성한 우리 조국강토를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고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 얼마나 통탄할노릇인가. 현실은 친미보수《정권》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친미사대매국행위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에도 커다란 해독적후과를 끼쳤다.

리명박역도와 박근혜《정권》의 《대북정책》은 그 명칭은 달라도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됐다. 리명박역도가 《대통령》벙거지를 쓰자마자 상전에게 《미국과의 공조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맹약한것이나 박근혜역도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기 바쁘게 《신뢰프로세스》가 《미국과의 동맹에 기초한 군사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것》이라고 떠벌인것은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며 그와 야합하여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려는 저들의 흉악한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리명박괴뢰당은 미국이 《북핵포기》의 묵통을 요란하게 두드리면 덩달아 《북핵포기》를 떠들며 그 《진전상황에 따라》 북남관계를 다루어나가겠다고 망발질하였고 미국이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나발질하면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외우며 상전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광분하군 하였다. 역적무리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6.15의 기치밑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끝내 파국상태에 처하고말았다.

괴뢰보수패당의 매국행적의 갈피에는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킨 박근혜역도의 죄악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박근혜패당은 집권 전기간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소동의 돌격대가 되어 날뛰므로써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모조리 말아먹었다. 이자들은 《통일외교》니 뭐니 하며 저들의 반민족적인 《제재통일》책동에 대한 외세의 지지를 구걸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편승하여 《독자제재》니 뭐니 하고 광기를 부리며 북남관계의 마지막숨통이였던 개성공업지구까지 서슴없이 잘질하였다. 북남관계의 이 엄혹한 현실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패당의 집권하에서는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문제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의 집단인 괴뢰보수패당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재집권야망실현에 기승을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이자들은 지금 진보민주세력을 《안보불안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대며 저들을 지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지어 집권하면 《트럼프와 〈칼빈손〉호에서 북핵문제를 함의》하겠다는 용납 못할 망발까지 서슴없이 줴치고있다.

친미굴종이 체질화된 이런 매국역적들이 또다시 권력의 자리를 가로타고앉는다는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칠노릇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사대매국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패거리들의 기만선전에 넘어가 그자들에게 지지표를 줌으로써 얼마나 큰 불행과 재난을 강요당했는가. 친미역적들이 살판치면 그로 인한 치욕과 고통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씌워지게 된다. 《싸드》배치소동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온갖 재앙의 화근인 친미역적들에게 결단코 종말산을 선고하고 력사무대에서 단호히 밀어낼 시각이 다가오고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역적배들은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은 정 철

로동자민중이 주인이 된 새세상을 찾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의 단체들 성명, 집회

5.1절을 맞으며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착취와 록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타오른 1 700만의 초불이 있어 로동자민중의 초불은 박근혜를 파면시키였으며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한걸음 더 전진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있으며 오늘도 생존권을 요구하여 전국의 로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로동자들이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철폐, 재벌해체, 로조활동의 권리쟁취를 위해 부당한 정리해고와 요시찰명단에 저항하고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정부》와 맞서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세시대에 대하여 말하고있지만 민심을 거역하는 우경화책동속에서 로동자문제해결방도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다음기 《정부》 5년 역시 이전과 다를바 없는 로동배제와 민생악화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다.

박근혜가 파면되였을뿐 사회의 곳곳에 있는 악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채 로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있는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것이며 이 투쟁의 길에서 남조선의 진보련대는 앞장서나갈것이다.

*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5.1절을 맞으며 1일 서울을 비롯한 15개 지역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서울의 대학로에서 2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초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진행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초불민심은 사라지고 후보들의 권력다툼만 요란하다고 단죄하였다.

지난 기간 쌓여온 악폐를 청산할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로동자들의 권리는 더욱더 외면당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싸드》가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해도 《대통령》선거후보들중 누구도 배치중단과 철거에 대해 말하지 않고있다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민주로총이 《대통령》선거직후 각계와 함께 《6.30사회적총파업》에 돌입할것이라고 밝혔다.

몇년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일부 《대통령》선거후보들의 발언은 하나마나한 공약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철폐, 로조활동의 권리보장, 재벌우두머리구속 및 재벌해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싸드》배치철회 등을 요구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071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